

건설안전기사의 직업세계

지난 8월 24일 EBS교육방송 「직업의 세계」 대담프로에 본 협회 권오석 회장, 안영주(삼성건설(주) 이사), 조선구(롯데건설(주) 안전감독관)씨 등이 출연하여,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설안전기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고는 대담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사회 : 최근 건설현장을 지나다 보면 안전제일이라는 표어말을 자주 보게됩니다. 그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산업재해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사의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손님으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권오석회장님, (주)삼성건설의 안영주소장님, 롯데건설(주)에 안전감독관으로 계시는 조선구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장님! 한국건설안전협회가 하는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장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그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몰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협회는 85년 한국기술사회 소속 건설안전기술사들이 모여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업무라는 것이 영역도 넓고 인원도 부족하여, 87

년 7월에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설안전기사1.2급을 합쳐 결성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지정단체입니다.

본 협회의 주요업무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정부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제반업무에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기관발주 공사에도 사전예방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재해발생현장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차후대책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부터는 정부로부터 건설안전교육을 전담하도록 지정받아 건설안전관리자 1700여명을 배출하였고, 관리감독자도 100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회 : 예, 참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안소장님은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고 계시는 공사현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칠서공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은 마산에서 약 3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또한 국도가 단지 중앙을 통과하여 유통조건은 최적이며 낙동강을 끼고있어 공업용수원이 풍부합니다.

단지 규모는 민간단체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110만평이며, 공사금액은 2천억원 정도입니다.

사회 : 재해없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구씨는 젊으신데 두분의 대선배님들과 앉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조 : 현재의 안전이 있기까지 선배님들이 노력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고 안전관리자가 사업주의 참모 보좌역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면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의 초석이 되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회 : 자격증을 취득하신지는 얼마나 되었고 당시 경쟁률은?

조 : 87년도에 취득했고 80명 정도가 응시해서 2명이 합격했으니까 약 40대 1이었죠.

사회 : 어려운 판문을 뚫고 합격을 하셨군요. 안 소장님이 시험을 보실 당시는 어떠하셨는지요?

안 : 제가 시험볼 당시는 건설안전기사가 현장 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만 있지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 권회장님! 그런데 요즘에 와서 경쟁력이 치열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장 :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안전기사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기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고 건설현장내에 안전기사의 인력부족으로 취직이 용이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회 : 조선구씨,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안전관리자로서 겪은 어려움은?

조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는 기능공 인력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불안정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려운 점은 발주자의 요구와 물가상승에 따라 이윤을 생각하여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므로해서 즉,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고,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방지를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을 권유하여도 너무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착용치 않고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볼 때 무척 안타깝습니다.

사회 :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안 :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시설내지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안전시설은 완공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능인들은 무조건 돈많은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안전관리자로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안 :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요인을 발견하여 재해를 미리 방지하였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 : 건설안전기사의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회장 : 우리나라는 안전기사의 권한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적었으나 개정후 안전기사의 작업환경이 좋아져 아직까지 선진국보다는 좀 못하나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 : 건설안전기사의 경력에 따른 임금수준은?

안 : 현재로서는 자격수당 및 선임수당만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재해환경에는 우선 진급등 특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기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 우선 근로자를 나의 가족처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산업전선에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사회: 회장님께서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이시기도 한데 건설안전기사시험에 대하여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회장: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공학을 전공하였어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안전교육, 인간공학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대행하고 있으니 교육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략)

사회: 회장님,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기사의 전망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회장: 과거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미흡했으나 최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87년부터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건설안전기사는 예방의학의 혜택과 마찬가지로 재해없는 현장 건설의 선두자이므로 그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예, 건설안전기사의 수요는 점점 늘게되고 우리나라도 곧 재해없는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

